

영어절의 주제에 관한 연구 *

이 상 윤
(한남대학교)

Lee, Sang-Yoon. (2002). A Study of Theme of English Claus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8(1), 223-239.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theme of English clause in terms of systemic grammar. For this I analyze the three subareas of subject theme and the four subareas of nonsubject theme in the form of features. Each of the seven feature sets of the seven thematic subareas is described in the systemic model. Finally All of the subsystems are described in the framework of the system network in order to show the potential of options of thematic English clause available in a certain situation.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영어절은 각각 다른 기본적인 세 기능인 관념적, 대인적, 텍스트 형성적 기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기능의 중심적 기능은 각각 이행성, 서법, 주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어절을 이해하려면 이 세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관시켜서 볼 때 비로써 영어절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세 중심기능 중에서 메시지로써 영어절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계문법이 영어절을 주제적 기능면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과 단편적으로 소개된 주제에 관한 연구물들을 통합하고 미비한 부분은 다소 보충하여 일관성 있게 체계망을 기술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단순절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절의 분석은 체계문법 입장에서 분석하여 이를 체계망상 모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Halliday 1973; 1981, Kress 1976)

* 이 논문은 2001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I. 영어절의 주제구조

영어절¹⁾은 이행성이나 서법구조 외에 메시지를 구성하는 주제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절의 첫 자리에 오는 주제(theme)와 그 다음에 오는 부제(rheme)로 되어 있다.²⁾ 아래에서 보여준 영어절에서 괄호에서 뽑아 괄호 밖에 놓인 요소들은 주제이고 괄호 안에 있는 요소들은 부제이다. 예 (Moreley 1985:70):

- i. You (will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 ii. The results (you will announce tomorrow).
- iii. Tomorrow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 iv. Tired (you may be).
- v.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 vi. Have (you seen the exhibition yet?).
- vii. What (did you see?).
- viii. Didn't (Sir Christopher Wren build this gazebo?).

위 예에서처럼, 영어절에서 절의 첫 자리에 놓인 요소는 독자나 청자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상대방에게 대화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미약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절에서 일반적인 연속순위를 깨고 예의 (ii)-(iv)에서처럼 본래 있던 자리의 요소를 뽑아서 절의 첫 자리로 옮겨 놓으면 이는 청자나 독자에게 더욱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를 진행할 때, '주제는 영어절에서 메시지의 출발점으로써 절의 첫 자리에 놓인 요소를 주제화요소로 한다' 라고 하는 정의를 기준으로 주제화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영어절의 주제와 주제화 분석

3.1. 무표주제와 유표주제

영어절은 일차적으로 메시지의 요소들을 특별히 절의 첫 자리에 배열하므로 주제화

1) '영어문'이란 용어 대신에 '영어절'이라고 쓰고자 한다. 절은 의미적으로 메시지로써 절 기능 말의 유형적 기능, 내용으로써의 절 등과 같은 기능들이 하나로 결합된 종합적 단위개념이다. (Halliday, 1985: 32-37.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 Berry, 1975: 92-93, Moley, 1985: 8-9.)

2) Halliday, 1985: 38-39 참고: 같은책 41-54. Berry, 1975: 161-165. Halliday, 1970: 160-162.

된 유표주제(marked theme)와 일반적인 서술문 유형인 무표주제(unmarked theme)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요소가 첫 자리에 있는 서술문에서 그 주어는 무표주제 주어(unmarked subject theme)이다. 반면에, 유표주제를 택하면 서술어(predicator)나 보충어(complement)나 혹은 부가어(adjunct) 등이 절의 첫 자리로 옮긴다. 다음의 예:

- (1) (a) You (will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b) The results (you will announce tomorrow).

위의 예(1)에서 본 바와 같이 영어절은 일차적으로 (1)의 (a)와 (b)의 절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를 구분지어 전자를 무표적 주제, 후자를 유표적 주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예를 더 보자.

(2) 무표주제의 예:

- (a) I shall complete this tomorrow or Friday.
 (b) You can find shells on the seashore.
 (c) (And)they ran all the way home.
 (d) Have you seen the exhibition?
 (e) What did you see?
 (f)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3) 유표주제의 예:

- (a) This I shall complete tomorrow or Friday.
 (b) On the seashore you can find shells.
 (c) (And) run they did all the way home.

이상의 (2)와 (3)에서 전자는 무표주제, 후자는 유표주제를 보여 주는 절이다. 이들을 각각 의미자질로 표시하면 (2)는 [unmarked], (3)은 [marked]로 주제절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다. 영어절은 이 두 의미자질의 특성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절의 주제가 무표절 혹은 유표절이 된다. 그리고 이 두 특성을 각각 선별체(option)로 본다면, 이들은 선별가능체³⁾를 갖춘 선별체계 모형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를 체계모형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선별가능체 (meaning potential of options) 참조: Halliday, 1970: 142-144; 1981: 138-140, Kress, 1976: 88-91.

4) 체계모형은 의미체계로써 추상적인 의미선별가능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모형이다. 참조: Halliday, 1981: 56-57, Huddleston, 1981: 58-65, Butler, 1985: 40-44.

- (4) clause theme →

unmarked:(2)
marked:(3)

3.2. 주어주제와 비주어주제

주제절을 다루기 위해 일차적으로 절의 첫 자리에 주제화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어절을 주어주제절(subject theme)과 비주어주제절(nonsubject theme)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예:

- (a) I shall complete this tomorrow or Friday.(=2a)
 (b) This I shall complete tomorrow or Friday.(=3a)

위에서 (a)는 무표주어주제 절이고 (b)는 유표비주어주제 절이다. (a)와 같은 평서절은 항상 무표주어주제 절이된다. 하지만 주어 'I'에 강세를 두면 다른 사람이 아닌 'I'라고 대조가 되어 무표주어주제가 유표주어주제 절이 될 수 있다.

3.2.1. 주어주제

아래 예의 (5a)는 서술문으로서 무표주어주제절이다. 그러나 (5b)는 주어 앞에 절안에 있는 보충어 'the table'을 특별히 주제화 하여 절의 첫 자리에 놓음으로서 유표비주어주제절이 되었다. (5)의 (c-d)는 (5b)의 경우처럼 주제화절이다. 이 경우는 (5b)처럼 주어의 앞자리에 주제화 하고자 하는 요소를 놓되 그 요소를 다시 대명사로 받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

- (5) (a) John gave Mary the table.
 (b) The table John gave Mary.
 (c) Snowdown, that's a mountain to be respected.
 (d) Stoke Pero Church, they had seven pages of visitors during October.

유표주어에 대한 또 다른 경우를 본다. 다음 예:

- (6) (a) John gave Mary the table.
 (b) The table John gave to Mary. (=5b)

(7) (a) The table was given to Mary.

(b) Mary was given the table.

(6a)는 무표주어주제 절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표적 특성을 띄어 주제화하고자 하면 (6b)와 같은 현상으로 주제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는 달리 (7)처럼 주제화 요소가 주어자리를 각각 대치하여 유표주어주제 절이 되기도 한다. 좀더 말하면 (7)에서 (a)의 주어는 (6a)에서 동사와 관련하여 세 번째 자리에 내재해 있던 요소가 절의 첫 자리로, 즉 주어자리로 이동하여 유표주어 주제절의 역할을 하고 (b)는 두 번째 자리에 내재하고 있던 요소가 주어의 자리로 이동하여 유표주어 주제절의 역할을 각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주제의 영역은 주어가 (6a)처럼 처음부터 첫 자리에 내재한 역할과 7(a,b)처럼 다른 자리에 내재하였던 것이 주어의 자리로 옮겨 주어주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의미범주를 각각 자질로 표시하면 (6a)를 [first inherent role]로, (7)은 [other inherent role]로 구별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두자질을 선별가능체의 입장으로 보면 무표와 유표의 선별체와 비주어주제와 대조를 이루는 주어주제를 동시에 전제조건으로 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선별체계 모형과 연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⁵⁾

(8)

	first inherent role]:(6a)
subject →	other inherent role]:(7ab)
	theme
clause	nonsubject
theme	theme
	unmarked
	marked

5) 의미선별체(sets of options)를 범렬적(paradigmatic) 입장에서 기술할 때 선별체들이 공통적인 의미영역을 전제로 하여 대조를 이룰 때 이를 의존적 (dependent)관계라 하며 '[기호(either A or B)를 쓴다. 그리고 체계모형(system)이 다른 체계모형과 독립적 (independent)이면서 동시에 상호공통적인 의미영역을 전제로 할 때, 이를 동시적 관계라 하며 '{기호(both A and B)를 쓴다. (참조: Halliday & Martin, 1981: 10: 11, 56-57. 참조 : Halliday & Fawcett, 1987: 15-24)

3.2.2. 유주어 서술형주제

다음은 서술형구조를 택하여 절을 주제화 하는 상황을 보자. 예:

- (9) (a) John gave Mary the table.(=5a)
 (b) It was John who gave Mary the table.
 (c) It was the table that John gave Mary.
 (d) It was Mary that John gave the table.

(9a)를 주제화 하고자 하면 ‘유표’적 특성을 택하게 된다. 그러면 주제화 하고자 하는 요소가 주어의 앞자리로 옮기는 대신에 (9)의 (b-d)처럼 ‘it + be + who/which/that’과 같은 서술형의 절을 선택하여 주제화 한다. 여기에서 주어는 가주어이며 주어형식으로는 무표 주어이고 주제화 하고자 하는 요소는 서술부 자리로 옮긴다.

(9)의 (b)-(d) 중에서 대표적으로 (9b)의 주제구조를 국지적으로 보면 ‘it’인 주어는 주제(theme) ‘was John’은 부제(rheme), ‘who’는 주제(theme) ‘gave Mary the table’은 부제(rheme)가 된다. 그러나 ‘John’을 서술주제로 해석하게 되면 그 영향이 확장되어 ‘it was John’이 주제가 되고 ‘who gave Mary the table’은 부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주어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보는 주제구조의 입장을 따르고자하기 때문에 서술형 구조도 유주어 주제의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9)는 유표 주제화 상황에 따라 (9a)와 (9b-d)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범주를 의미특성으로 표시하면 전자는 [non-predicated]로 후자는 [predicated]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이 선별체를 (8)의 체계모형과 연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0)
- | | | |
|--------|------------------|--------------------|
| | | predicated:(9b-d) |
| clause | subject theme→ | nonpredicated:(9a) |
| theme | nonsubject theme | |

3.2.3. 명사화주제

지금까지는 유표 주어의 절에서 주제주어가 단순한 요소로 선택되는 경우이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주제주어가 단어가 아닌 명사절(nominalization)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어와 보어가 동일시(identification)되는 절이 이에 속한다. 다음의 예:

- (11) (a) The duke gave my aunt that teapot.
 (b) What the duke gave to my aunt was that teapot.

- (c) The one who gave to my aunt was the duke.
- (d) The one the duke gave to was my aunt.
- (e) What the duke did with that teapot was give it to my aunt.

(11)에서 (a)와 같은 절은 (b)-(e)처럼 동일시화 절로써 주제화 되어 유표유주어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시화 절은 (12)에서 보듯이 주제요소가 부제자리로 옮기고 부제자리에 있던 요소를 주어자리로 바꾸어 주제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

- (12) (a) That is the one I like.
- (b) This teapot was what the duke gave it to my aunt.
- (c) A loaf of bread is what we chiefly need.

(11)의 (a)와 (b-d)의 범주를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a)는 [non-identification], (b-d)는 [identification]으로 각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을 (10)의 선별체계모형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subject theme	identifying
clause		non-identifying
theme	nonsubject theme	

3.2.4. 유주어 체계모형

지금까지 기술한 유주어 주제절의 선별체계들을 종합하여 체계망상모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 (14)

	unmarked	
	marked	
clause	subject	first inherent role
theme	theme	other inherent role
		non-predicated
	nonsubject	predicated
	theme	non-identifying
		identifying

3.3. 무주어주제화

3.3.에서는 3.2.에서 기술한 유주어와 대조를 이루는 무주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무주어란 영어질의 첫 위치인 주제화 자리에 주어 대신 다른 요소가 주제로 주어의 앞 자리에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크게 보충어(complement), 부가어(adjunct) 혹은 서술어(predicator) 등과 같이 세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

- (15) (a) John gave Mary the table.(=5a)
 (b) The table John gave to Mary.
 (c) To Mary John gave the table.
 (d) Give Mary the table.
 (e) Did John give Mary the table?

(15)에서 (a)는 유주어주제절이고 (b-e)는 무주어주제절이다. 후자의 경우를 다시 분석한다면 (b)처럼 보충어가 주제화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c-e)로 그 특성을 더 세분화하여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특질로 표하면 (a)는 [complement], (c-e)는 [noncomplement]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대조를 이루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들 선별체는 유주어주제와 대조가 되는 무주어주제를 전제조건으로 할 때 선택될 수 있는 선별체들이다. 이들을 선별체계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 (16)
- | | | |
|--------|-------------|-----------------------|
| | non-subject | complement:(16a) |
| clause | theme | |
| theme | | noncomplement:(16b-e) |
| | subject | |
| | theme | |

3.3.1. 보충어 주제화

다음은 무보충어와 대조를 이루는 보충어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보충어의 주제화는 타동사 중심인 보충어와 자동사 중심인 보충어로 구분한다. 전자와 같은 경우의 범주 특성을 [extensive], 후자와 같은 범주를 [intensive]의 특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음의 예:

- (17) (a) The table John gave to Mary

- (b) The exhibition we saw last Friday
- (c) What they not eat that night.
- (d) What did John give Mary?

- (18) (a) Tired you may be John call him
 (b) Stupid though you may be.....
 (c) Sad am I without thee

(17)은 목적어가 보충어로 주제화되어 있는 경우이다. (17)의 (a)나 (b)와 같은 경우는 명사 보충어가 주제로 있는 유표보충어주제절이다. (17d)는 의문적인 특성을 가진 wh-명사 보충어를 첫 자리에 놓은 무표의문절이다. 그러나 이를 유표보충어주제절이 될 경우에는 wh-명사(즉 의문사)에 강세를 준다. (17c)는 명사절을 주제화한 경우이다. (18)에서는 형용사로서 보충어가 주제화되어 있는 유표보충어주제절이다.

(17)과 (18)를 각각 자질로 표시하면 전자는 [complement: extensive :nominal]로 후자는 [complement: intensive: adjectival]로 범주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자질범주는 선별체로 상호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17)의 체계모형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19)

	non-subject	complement	extensive
clause	theme	non-complement	intensive
theme			
	subject		
	theme		

3.3.2. 비보충어주제

보충어주제와 대조가 되는 비보충어주제에 관하여 살펴보자. 비보충어주제는 서술어(predicator)와 부가어(adjunct)로 구분하여 대조를 이룬다. 다음의 예:

- (20) (a) Have you seen the exhibition yet?
 (b)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c) On Friday I'm going to the cinema
 (d) On the shore Peter cut his foot

(20)의 (a-b)는 서술어가 (c-d)는 부가어가 각각 주제로 되어 있다. 비보충어주제절

지금까지 의문절에서 나타난 무표서술어 주제절을 다루었다. 그런데 무표서술어 주제 절이 유표서술어(marked predicator) 주제가 될 수도 있다. 다음의 예:

- (24) (a) (And) run they did all the way home
(b) Forget it I never shall

(24)에서 보듯이 평서문 절에서 서술어를 특별히 주제화하고자 하면 (a)처럼 서술어를 첫 자리에 놓고 대동사로 서술어를 받거나 (b)처럼 서술어를 첫 자리에 놓아서 주제화하기도 한다. 이들을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전술했던 [unmarked;predicator]와 [marked predicator]와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는 무표서술어만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무표서술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predicator:finte] v.s. [predicator:nonfinte]
(b) [predicator:positive] v.s. [predicator:negative]
(c) [predicator:auxiliary] v.s. [predicator:nonauxiliary]

이들 (a)-(c) 선별체들은 수평적으로 각각 대조를 이루고 (21)의 체계에서 보여주는 비보충어 선별체 [noncomplement]와는 전제조건을 이루어 더 세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비한정 서술어(nonfinite predicator)주제를 생각해보자. 예:

- (25) (a)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b) You keep quiet
(c) Let's go home
(d) do keep quiet
(e) do let's go home
(f) don't argue
(g) don't go home

(25)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조적으로 주제라기보다는 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주제란 절의 첫 위치에 놓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25)도 서술어가 절의 첫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보려고 한다. 따라서 (25)는 비한정 서술어주제절이다. (a)-(c)는 무표 비한정 서술어주제절이

고 (d)-(e)는 비정형동사 'do'를 사용하여 유표 비한정 서술어주제절의 기능을 한다. 또한 비한정 서술어도 (f)-(g)처럼 부정의 절로 나타나게도 한다. 이를 의미특성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c): [unmarked : predicator: positive:nonfinte]
 (d-e): [marked:predicator: positive:nonfinte]
 (f-g): [unmarked:predicator: negative:nonfinte]

지금까지 (23)과 (25)에서 설명한 서술어주제절의 의미특질을 함께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6) (a) [predicator: finte] v.s. [predicator:nonfinte]
 (b) [predicator: positive] v.s. [predicator:negative]
 (c) [predicator: auxiliary] v.s. [predicator:nonauxiliary]
 (d) [unmarked: predicator: positive/nonfinte]
 (e) [unmarked:predicator: negative/nonfinte]
 (f) [marked:predicator: positive/nonfinte]

(26)의 (a-f)는 수평적으로는 서로 의존적 대조 관계이다. 부가어와 대조를 이루는 서술어는 이들의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다. 이를 (21)의 선별체계모형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27)

			finite
	noncomplement	predicator	nonfinite
clause			positive
theme			negative
	complement		auxiliary
		adjunct	head

3.3.3. 부가어주제화

비보충어를 전제로 할 때 서술어주제와 대조가 되는 부가어 주제절을 살펴 본다. 부가어(adjunct)에서는 부사(구)(adverbial adjunct), 접속부가어(connective adjunct), 서

법부가어(modal adjunct) 등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부사 부가어주제의 절을 본다. 예:

- (28) (a) Tomorrow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b) Frankly I'm amazed.
 (c) Near the lake there was a huge oak tree.
 (d) In the evening we went down to the beach to ply.
 (e) On a former occasion we had discussed this.
 (f) Where did he go ?
 (g) After tea will you tell me a story?
 (h) In your house who does the cooking?
 (i) Seldom have I seen so poor a game

부사 부가어절은 절 안에 있는 부가어 요소에 특별히 주의를 이끌고자할 때 절의 첫 자리로 이동하여 주제화의 기능을 하게 한다. (28)은 유표부사부가어주제절이다. 위에서 (f)의 경우는 무표 부사 부가어이나 부사인 'where'에 강세를 주면 다른 예들의 경우와 같이 유표 부사 부가어 주제가 된다. (28)을 의미특질로 표시하면[marked:noncomplement:adjunct:adverbial]이 된다.

다음은 서법 부가어주제의 절을 살펴본다. 예:

- (29) (a) Perhaps it doesn't understand English
 (b) In my opinion you never think at all
 (c) Please close the door
 (d) Certainly the glass was beginning to melt away.
 (e) Most of time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f) Seldom have I seen so poor a game

(29)의 서법부가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하여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주제기능을 한다. 서법부가어와 접속부가어는 화자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이 판단하고자 하는 관점을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주제화한다. 이 두 종류의 부가어는 절의 첫 자리에 일반적으로 놓이는 전형적인 부가어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첫 자리에 놓이는 것은 아니고 절 속에 놓는 경우도 있다. (29)을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marked:noncomplement:adjunct:modal]이 된다

다음은 접속부어 주제절을 생각해 본다. 여기서 접속부가어는 네 유형인 첨가부가어(additive adjunct), 반의부가어(adversative adjunct), 우발부가어(casual adjunct), 시간부가어(temporal adjunct) 등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 예:

(30)

(a) 첨가사주제의 예:

The party got to the summit and had their lunch. They had time for a rest afterwards

첨가접속사는 대화의 화제를 더 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동등한 등위적 기능이라기보다는 메시지 정보를 더 추가하는 주제의 새로운 절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첫 번째 'and'는 앞 절과 다음절을 대등하게 순서를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and'는 보충적인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adjunct:connective:additive]가 된다

(b) 반의접속주제(adversative)의 예:

He worked very hard. He didn't pass
Nevertheless he is a reliable man.
However one of the knights will show you the way.

반의접속사는 기대와는 다른 정보를 소개하는 주제적 기능을 한다. 이를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adjunct:connective:adversative]이 된다

(c) 우발접속주제(casual)의 예:

He didn't pass this time, so he will have to resit
I was in the bath, with the result of that I didn't hear the telephone.

이 접속사는 이유나 결과나 목적 등의 관계를 뚜렷하게 표지 해주는 주제적 기능을 한다. 이를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adjunct:connective:casual]이 된다

(d) 시간접속주제(Temporal)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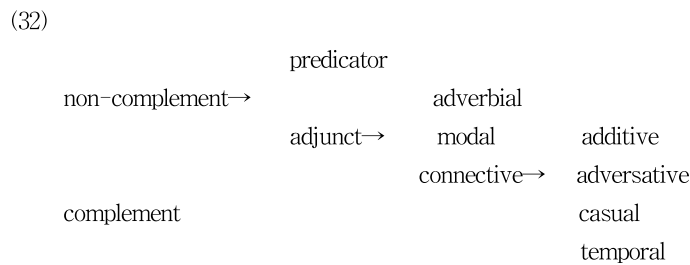
First he forgot his money, then he forgot his keys.
Previously he had never been absent for day

이 접속사는 절과 절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시간적으로 연속순차를 구체화 해주는 주제적 기능을 한다. 이를 의미특질로 표시하면 [adjunct:connective:temporal]이 된다

지금까지 유표부가어 주제절을 설명하였다. 유표 부가어절은 비보충어를 전제조건으로 할 때 서술어와 대조를 이루는 선별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 (31) [adjunct: connective: additive](=30a)
- [adjunct: connective: adversative](=30b)
- [adjunct: connective: casual](=30c)
- [adjunct: connective: temporal](=30d)

(31)은 의미선별체이다. 이들 선별체는 비보충어를 전제조건으로 하였을 때 서술어 주제와 대조를 이루는 부가어의 범주를 더 세분하여 의미특성으로 표시한 것이다. 부가어주제절은 수직적으로 서술어주제절과 대조를 이룬다. 부가어주제절을 더 세분한 (31)의 선별체는 부가어주제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호간에 대조를 이룬다. 이를 (27)의 선별체계모형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IV. 결 론

지금까지 영어절의 주제에 관하여 무표 유주어절과 유표 무주어절의 의미자질을 분석하였다. 이 두 유형의 주제절을 각각 세분하여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선별 잠재체를 의미특질로 기술하고 이들을 다시 선별체계 모형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범주별로 이루고 있는 하위 선별체계 모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큰 체계망상으로 기술하였다.

		first inherent role	
	unmarked	other inherent role	
	marked	predicated	
clause		non-predicated	
theme		identifying	
	subject	non-identifying	
	theme		
	non-subject	complement	
	theme	non-complement	
		nominal	
	extensive	wh-nominal	tonic
	intensive	nominal	adverbial
		adjectival	modal
		positive	connective
	predicator	negative	
		finite	additive
		non-finite	adversative
	adjunct	auxiliary	casual
		nonauxiliary	temporal

참 고 문 헌

- Berry, M.(1975). *Introduction to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161-165.
 Butler, C. S. (1985). *Systemic Linguistics: Theory and Applications*. London: Batsford. 47-52.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al and Language Function." In J. Lyon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England: Penguin Books Ltd 160-162

- Halliday, M. A. K. (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1981). "Options and functions in the English Clause." In M. A. K. Halliday & J. R. Martin (Eds.),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London: Batsford 38-63.
- Halliday, M. A. K., & Martin, J. R. (Eds.). (1981).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113-120.
- Halliday, M. A. K., & Robin, P. F. (Eds.). (1987). *New Development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14-29.
- Huddleston, R. A. (1981). "The Systemic Features and Their Realization of the English Clause." In M. A. K. Halliday & J. R. Martin (Eds.),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58-65.
- Kress, G. R. (Ed.). (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79-187.
- Morley, G. D. (1985). *An Introduction to Systemic Grammar*. Macmillan. 70-76.
- Muir, J. (1978). *A Modern Approach to English*. London: Batsford. 97-101.

이 상 윤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Tel: (042) 629-7327

E-mail: leesy@mail.hannam.ac.kr

Received Date: 2002. 4. 26

Confirmed Publication: 2002. 6. 11